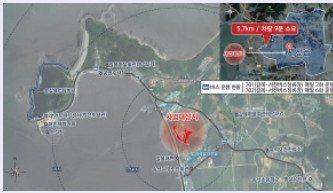


해양수산부, 어촌 활력 위한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 본격화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
2025.4.23.



충남 서천군 청년바다마을 사업지



전남 신안군 청년바다마을 사업지



청년바다마을 조성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연리지



청년바다마을 조성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다시 쓰는 불턱 이야기
출처: 해양수산부. (2025.4.24). 해양수산부,
청년바다마을의 윤곽을 드러내다 [보도자료].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청년층의 어촌 정착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추진 중이던 '청년귀어증합타운'의 공식 명칭으로, 청년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해 일자리와 지역사회 참여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2024년 3개소 조성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8개소를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어가 인구는 2018년 12만 명에서 2023년 8만 7,000여 명으로 27%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전체 어가 인구의 청년 비중은 1970년 24.7%에서 2020년 10.3%로 줄어드는 등 인구 고령화와 이탈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해수부는 청년 귀어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생활 인프라 부족 ▲수산업 창업 비용 부담 ▲어촌사회의 폐쇄적 분위기 등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귀어 필수 조건 패키지'**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지는 청년의 주거·일자리·지역 융화가 가능한 입지를 중심으로 선정되며, 마을 설계에도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올해 사업 대상지로는 충남 서천군과 전남 신안군이 최종 선정되었다. 서천군은 송석항 인근에 김 산업 특구와 연계한 일자리 기반을, 신안군은 하우리항과 진리항 사이 부지에 어선·굴·김 양식장 및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등 다양한 수산업 인프라를 갖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마을 설계는 청년 아이디어 공모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동양미래대학교 학생들의 '연리지'가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연리지'는 코리빙(co-living) 구조와 커뮤니티 중심 공간 설계로 청년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조하였다. 우수상은 해녀의 전통 공간인 '불턱'을 공동체 거점으로 재해석한 경북대의 '다시 쓰는 불턱 이야기'가 차지하였다.

해수부는 올해 사업 목표인 3개소 조성을 위해 7월 말까지 추가 1개소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어가인구 통계

** 주거공간, 일자리와 소득(입주민 전용 양식장 등) 및 지역사회 융화(각 지역 어촌계와 연계)를 보장